

헬스케어·바이오시스템...건강·정서 챙기며 노후 즐긴다

스마트쉐어하우스 어떤 모습일까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갈 원도산마을 스마트 쉐어하우스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쉐어하우스, 즉 공유주택이란 최근 각광받는 도시 공동주택형태로서 일정규모의 대형 주거시설에 주방 거실 여가공간등을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침실등 개별공간을 두어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시대의 IT, AI 등 스마트 설비를 첨가한 것이 스마트쉐어하우스인 만큼 자동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장치, 첨단 공동주방, 보조로봇 등이 가능 된다면 전국적 화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쉐어하우스는 당초엔 선진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절약하고 사용빈도가 적은 고가 가재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젊은층의 필요에 따라 생겨났다. 그러나 일본, 유럽등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들 사이에선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유지시키는 주거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서울 금천구의 쉐어하우스는 외관상 4~5층규모에 공동주방과 식당, 여가공간을 갖추고 노인들끼리 모여 생활하며 서로의 건강과 정서를 챙겨주는 노·노(老-老)케어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복지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원도산마을의 경우 노인인구가 많고 독거노인도 10여가구 존재하는 만큼 스마트쉐어하우스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벌써부터 화제다.

IT, AI 등 스마트 설비 첨가 '老-老 케어'로 고독사 방지 주거비용도 줄여 삶의 질 개선 주민 25명 중 10명 입주 희망

고령 가구의 하우스 쉐어링은 주거 비용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및 생활의 안정성 제고 등의 기대 효과가 크다. 원도산마을의 경우에도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주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할 경우 노후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입주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다면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도산마을 스마트쉐어하우스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고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극히 기초적인 윤곽만 잡혀있다.

광산구 도시재생추진단이 수립한 원도산마을 스마트 쉐어하우스 활성화 계획을 보면 위치는 광산구 도산동 599-3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568㎡(172평), 건축면적 166㎡(50평)에 3층 규모로 연면적은 498㎡(150평)으로 짓는다.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하며 사업비는 27억5천만원(국가지원 13억 9천만원, 지자체부담 13억6천만



소규모 작물 재배로 입주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스마트쉐어하우스.

원)으로 책정되어있다.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스마트쉐어하우스는 마을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와 거주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마련필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건강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필요에 따라 짓는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건강취약노인이 우선 입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활성화계획은 또 주요 시설로서 거주자 공용공간을 각 층마다 조성하고 개별 거주공간도 마련하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반영해 실내거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용주차장과 조경이 된 스티

와 텃밭을 배치한다고 되어있다.

원도산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남자 19명과 여자 30명, 총 4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3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원도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태를 조사하여 스마트쉐어하우스 입주희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 25명 중 10명이 스마트쉐어하우스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입주희망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10명 중 5명이 단독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80살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3명, 여자 7명으로 여자가 희망 비율이 더 높았으며, 주거 형태는 자가 5명, 전세 외 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마트쉐어하우스의 수용 인원, 공용 시설, 건물 형태 등의 논의 사항은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건물 설계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현장지원센터는 밝혔다.

/박효정 학생기자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 운영 어떻게

판매장·작업장·체험실 등 조성 마을전시관에선 다양한 전시 신선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여성·고령 농민 소득 창출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농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하여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한 해 총 44억원의 판매를 기록하고, 이 중 90%가량의 39억 원을 생산 농가에 환원하여 농민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생산 농가를 비롯해 여성과 고령의 농민에게도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준다.

원도산 마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마을에 조성되는 주요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주요 사무 공간,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시설, 마을 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경제기반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원도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인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광산구 도산동 625번지 외 1필지 일원으로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경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공동 작업장, 휴게실, 창고, 도시농부 체험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을 전시관을 조성하여 기획 전시, 상설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반영한 지속적인 전시와 도시농업 체험공간(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판로를 1913 송정역 시장의 '누구나 가게'를 활용하여 확보하고 마을 내에서는 생산, 집하, 검수, 가공, 출하 등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거점 기능 수행을 통한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마을 관리 협동조합, 경제활동 공간 마련에 따른 공동체 활동 증가, 경제활동 거점을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참여 기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는 원도산 마을에 알맞은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 조성을 위해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주거복지 시스템연구단과의 워크숍 등 다양한 기관과의 만남을 진행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의 구체화 과정을 준비 중이다.

/박효정 학생기자



노인 쉐어하우스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 금천구 보린두레주택. 경로당 건물을 허물고 지은 자리에 공동주방, 개별침실 등을 조화롭게 갖췄다.



입주자 외 지역노인들도 함께 이용...지역공동체 '모범'으로

노인쉐어하우스 선진사례 서울 금천구 보린두레주택

노인 쉐어하우스 모범사례로 '보린두레주택'이 손꼽힌다. 서울 금천구에서 시행한 '보린두레주택'은 낮은 경로당을 허문 자리에 세워진 4층 건물이다.

1층 주차장 6면을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해 그 수입을 건물 관리비에 보태고 있다. 2층은 경로당으로, 보린두레주택에 입주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노래 교실·영화 감상 등 운영 지자체서 상주 직원 두고 관리 안부 확인·병원 동행 등 지원도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노래 교실,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3층과 4층은 거주 공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8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건물에 엘리베이터

가 설치돼 있어 입주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보린두레주택은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로 지자체가 상주 직원을 두면서 공용 공간 청소부터 안부확인, 병원 동행, 공공금 납부 등의 일을 도와주고, 임대주택입주자 발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이러한 좋은 선진지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원도산 마을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주도라고 밝혔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사례인 진안 원연장 꽃잔디 마을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원도산 마을의 주민들도 불편한 주거환경과 생활 문제를 능동적으로 찾고 해결하며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야 한다.

/박효정 학생기자

「**믿을수있는 우리채소**」

싱싱농산물이 가득,
원도산마을 **힐링로컬푸드 전문관**
“광산구의 자랑입니다.”

Together
GWANSAN